

KIA 용병 교체…마운드 재정비

부상 라이트 퇴출…ML 출신 투수 콜론과 계약

로페즈와 선발진에 새 활력…‘5월 대반격’ 시동

KIA 타이거즈가 마운드 재정비 작업을 위해 용병교체 카드를 빼어들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5일 빅리거 출신의 투수 로만 콜론(31·우투우타)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계약금 10만달러, 연봉 20만달러 등 총 30만달러(한화 약 3억3000만원)에 KIA 유니폼을 입은 콜론은 198cm 몸무게 107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즈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서 5시즌을 보냈다.

KIA는 지난해 로페즈·구톱슨이라는 두 투수를 앞세워 용병농구에서 재미를 봤지만을 시즌 ‘부상’이라는 압초를 만나 골머리를 앓았다. 야심작으로 영입했던 로드리게스는 어깨 부상으로 시즌도 시작하기 전에 퇴출됐고, 대체 용병으로 합류했던 라이트도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KIA를 고민스럽게 했다.

한 시즌 사용할 수 있는 용병 교체권은 두

장. 로드리게스라는 카드는 그라운드에 내밀어 보지도 못했다. 라이트는 두 차례 선발등판 후 부상병이 됐다. 로드리게스의 이탈로 훌륭했던 선발 라인업이 겨우 안정세로 돌아가려던 시점에서 나온 라이트의 부상으로 KIA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라 분주했다.

라이트는 두 차례 선발등판에서 불안한 제구를 노출했지만 묵직한 구위를 선보이며 한 국무대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용병들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적응력에서도 학점을 받았던 라이트다. 무엇보다 고풍 동작 수정을 통해 제구를 잡아가던 중에 부상을 당했던 만큼 KIA는 라이트의 거취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상이 완쾌된 후 타 팀에 서 영입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고심 끝에 KIA는 1차 검증이 끝난 라이트를 버리고 로만 콜론을 선택했다. 5월 대반격을 준비하는 KIA에게는 마운드 전력완성

이 시급한 과제. 라이트의 재활과 피칭까지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서 KIA는 교체를 강행했다.

콜론은 메이저리그 5시즌 동안 121경기에 출장해 179와 3분의 1이닝을 동안 8승10패1 세이브 5.129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198cm의 큰 키에서 뿐리는 140km 후반대의 직구로 눈길을 끈 콜론은 제구도 뛰어나고 완급 조절도 수준급이며 다양한 변화구를 보유했다는 평가다.

V10의 주연인 로페즈와 같은 도미니카 출신이라는 것도 고려됐다. KIA는 지난 시즌 타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로페즈를 위해 사촌형을 불펜투수로 영입해 동행하게 하는 등 ‘로페즈 기살리기’에 주력했다.

초보 선발 전태현이 5일 한화 앤드류스 류현진과의 대결에서 프로데뷔 후 첫 승을 거두며 선발진들 모두 마수걸이 승차를 거뒀다. 본격적인 승리 사냥을 시작한 KIA 선발진. 비슷한 경력의 두 도미니카 용병이 마운드 재정비 작업의 키를 쥐고 있다.

한편 6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콜론은 7일 잠실에서 KIA 선수단과 첫 대면을 갖고 한국무대 데뷔를 준비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어린이날 ‘동심 울린’ 암표 극성

5일 KIA-한화 입장권 3배 치솟아

암표상들이 ‘어린이 날’을 맞아 광주 무

등야구장을 찾은 어린이 팬들을 물렸다.

지난 5일 2010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린 광주 무등

야구장에서는 입장권 현장 판매가 시작

(오전 11시30분)된 지 1시간 만에 동이

났다. 1만3400석의 입장권이 모두 팔린

것이다.

나 암표상에게 옷돈을 주고 암표를 산 뒤 입장했다. 암표상들이 극성을 부렸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모(32·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조카와 함께 무등야구장을 찾았는데, 입장권이 등이 나 밭길을 들렸다”면서 “버젓이 암표상들이 장사를 하는데, 경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법처처벌법에 따르면 암표상 초범은 3만~5만원, 재범은 10만원 가량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긴다.

그러나 암표상은 1인당 수십 장의 표를 쥐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몫 쟁기’ 암표상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처벌인 셈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이세돌 3개월째 랭킹 1위

세계랭킹 1위 신지애 재규어 홍보대사



2차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세돌이 5월에도 랭킹 1위를 지켰다.

6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5월 랭

킹에서 이세돌 9단은 9747점을 얻어 이창호

9단(9605점)을 누르고 1위에 올라 3개월째

수위에 자리했다. 지난달 이창호에게 역대

최소인 2점차로 쫓겼던 이세돌은 4월 12승

(무패)을 쓰러짐으며 110점을 끌어올려 2위

와 점수 차를 142점으로 벌렸다.

/연합뉴스

기업인재개발 전문 교육기관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가 운영하는 교육비 전액무료! 중소기업 무료 직무교육!

■ 지원 기관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운영 기관 : AIFA(아이파경영아카데미)

[수강 이벤트 “무료 직무교육 듣고 상품권도 받자!”]

단기직무 3과정 수강시 문화상품권 2만원, 5과정 수강시 문화상품권 5만원 증정!
핵심직무 과정 수강시 문화상품권 1만원 증정!

2010년 단기직무능력향상사업 우수과정

교육비 100% 전액 무료! / 주중야간, 주말과정/ 분야별 마스터 인증서 수여

■ 지원 대상 : 고용법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및 대기업 기간제 근로자

■ JUMP 과정 안내

교육분야	과정명	교육 일정	교육 시간
인사	성과 중심 직무관리	5월 7일(금) ~ 8일(토) / 10시간	(금) 19:00 ~ 22:00 / (토) 9:30 ~ 17:30
인사	고성과 교육훈련 운영	5월 15일(토) / 7시간	(토) 9:30 ~ 17:30
영업	Win-Win 영업 협상스킬	5월 29일(토) / 7시간	(토) 9:30 ~ 17:30
인사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5월 30일(일) / 7시간	(토) 9:30 ~ 17:30
회계	효율적 경영지원을 위한 재무제표 분석실무	8월 27일(금) ~ 28일(토) / 11시간	(금) 19:00 ~ 22:00 / (토) 9:00 ~ 18:00
회계	효율적 세무관리와 자산증빙 실무	9월 3일(금) ~ 4일(토) / 11시간	(금) 19:00 ~ 22:00 / (토) 9:00 ~ 18:00
회계	효율적 전산회계 실무	9월 11일(토) / 8시간	(토) 9:00 ~ 18:00

2010년 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 우수과정

교육비 100% 전액 무료! / 수료후 동영상 복습 무료 제공! / 무료 전문가 상담

■ 지원 대상 : 고용법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및 사업주

■ 핵심 과정 안내

교육분야	과정명	교육 일정	교육 시간
회계	중소기업별 회계환경 변화와 재무제표의 전략적 활용 실무	5월 31일(월) ~ 4일(금) / 28시간 6월 2일(화) : 선거일 휴강	9:30 ~ 17:30

※ 자세한 일정 및 교육내용은 본기관 홈페이지 www.aifabiz.co.kr/biz2010을 참조

■ 교육 장소 : 광주 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서구)

■ 훈련 신청 : www.aifabiz.co.kr/biz2010 홈페이지 접수

■ 문의 : 02-522-8273

광주시생체회 5월 체육행사 풍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시생체회)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생활체육 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 및 화합의 장인 ‘제5회 광주시장기 어르신생활체육축제’가 오는 14일 열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한편 시생체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 까지 3일간 강원도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1회 국무총리배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시작으로 14일 전국연합회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와 21일 서울동 대문구체육관에서 열리는 2010 전국생활체육태권도페스티벌·제6회 문화체육관

또 16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4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와 제2회 광주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수영대회가 광주실내수영장에서 각각 진행되며, 5개 구 생활체육회와 구청이 함께 하는 청장 기대회와 구연합회장기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시생체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 까지 3일간 강원도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1회 국무총리배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시작으로 14일 전국연합회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와 21일 서울동 대문구체육관에서 열리는 2010 전국생활체육태권도페스티벌·제6회 문화체육관

어르신축제·축구·수영대회 잇따라

21일 U대회 성공 개최 다짐행사도

광부관기 국민생활체육 당구대회·제13회 전국연합회장기 생활체육볼링대회 등 종목별 전국대회에 출전해 그간 닦은 기량을 펼친다.

김창준 회장은 “나른하고 지치기 쉬운 봄 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스포츠 7330’ 실천이야말로 보약이다”라며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행사에 참여해 건강을 챙겨보자”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생활체육회(371-7330)로 문의하면 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모태범·이상화·이승훈…’ 밴쿠버 영웅들 우표로 탄생

모태범·이상화·이승훈 등 2010 밴쿠버올림픽 메달리스트

들이 6일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밴쿠버동계올림픽 빙상 세

/연합뉴스

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3년

쇼트트랙 파문에 휘말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단국대)와 계주은 메달리스트 곽윤기(연세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측 관계자는 6일 “전날 오후 빙상 연맹으로부터 상벌위 결과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았다”며 “곽윤기와 이정수 모두 자격정지 3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설상 선수권을 그만두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다.

빙상연맹은 공동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상벌위를 열어 이들에게 해명 기회를 줬지만 예상을 뛰어넘어 자격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남편 ‘멀리건’에 아내 실명

골프장·남편 35% 죽임

수원지법, 부인도 30% 과실

남편이 친 멀리건(골프에서 티샷을 잘못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에 부인이 맞아 실명했다면 골프장에 35%, 남편에게 35%, 부인에게 30%의 과실이 각각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35%, 목표지점 전방에 자신의 부인 등 일행이 서 있는데 샷을 한 A씨 남편에게 35%, 목표지점 전방에 그대로 서 있는 등 주의